

#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 401

2018.10.21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 오늘의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1,12

###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2   | 2018 설문조사 특집   |
| 3   | 교회 소식          |
| 4~5 | 2018 가을운동회 화보  |
| 6~7 | 창립30주년 기념 지상토론 |
| 8   | 번식교회 소식        |
| 9   | 사역 소식          |
| 10  | 목회칼럼 / 기고      |
| 11  | 항존직 피택자 명단     |
| 12  | 아기나들이 / 공동체 소식 |

### 교회 일정

- 10/21(주일) 추수감사주일  
10/28(주일) 종교개혁주일, 입교·세례예식  
11/2(금) 금요기도회  
11/4(주일) 성찬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 가을운동회, 가을 하늘을 날다

2018년 가을운동회가 2018년 10월 3일 정신학원 교정에서 개최되었다. 교회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어울림 한마당으로, 어린이에서 장년부까지 참여하여 교구별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이 운동회에는 예정했던 1,000명을 훌쩍 넘긴 1,130명이 참여하여 오전 6개 종목, 오후 5개 종목으로 된 다양한 경기들을 함께 즐기고,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무리되었다.

〉 관련기사 3면, 화보 4~5면. 함즐함울

## 2018년 항존직 선거 종료

장로 3명, 안수집사 17명, 권사 16명 피택

2018년 항존직 선거가 10월 7일의 1차 투표, 14일의 2차 투표를 거쳐 완료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 장로 3명, 안수집사 17명, 권사 16명이 피택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후보자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검증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등 항존직으로 가져야 할 자질과 태도에 대한 엄정한 절차가 진행되어 이채를 띠었다.

1차 투표에서는 투표권자의 19.8%가 참여하여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데 1차 투표에서는 장로 1명, 안수집사 8명, 권사 9명이 피택되었다. 2차 투표에서는 장로 1명, 안수집사 9명, 권사 7명이 피택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손천숙 장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 하면서, 주님의교회 앞으로 10년 동안 낮은 자세로 헌신과 봉사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 피택자 명단 11면 함즐함울

## 2018년 통일선교 바자회 열려

통일 선교를 위한 한마당, 통일선교 바자회가 10월 20일 주님의교회 본관 로비, 앞마당, 주차장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주님의교회 통일선교 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각

교구가 협력하여 개최된 이번 바자회에는 의류, 잡화, 생활용품, 전자제품, 운동기구, 문구와 완구, 식기 등 교인들이 기증한 다채로운 상품이 판매되었다. 이밖에도 김치와 전통장, 젓갈, 건어물, 과일 등의 식료

품, 국밥, 해물전, 찜빵과 만두, 어묵과 차, 북한 음식 등 맛있는 먹거리와, 통일을 상징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통일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함즐함울

창립 30주년 기념 |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 추수감사절, 다시 되새겨야 할 교회의 정체성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에 맞는 추수감사절은 좀 특별하고 애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을걷이 후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절기는 고대로부터 어느 민족에게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회에서 풍습을 받아들인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일반적으로는 처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온 후, 옥수수를 심어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낯선 땅에서 흉년과 식량난, 전염병과 악천후 때문에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아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린 일에서 유래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라는 학설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수확한 옥수수가 많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옥수수가 없으면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니 어째 어색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들판에 쌓인 옥수수 더미 크기에 달려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난 호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사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올렸지만, 계속 이어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크기일까요? 늘어난 교인일까요?

설문조사를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고(88%), 부부가 함께 교회에 다니며(86%),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했고(83%), 21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며, 신앙생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76%). 그런데 또한 많은 분들이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며(83%),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50%), 겨자씨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43%). 즉, 신앙에 대한 자기 확신은 높는데 실천에는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30년 전 교회 창립 당시의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그 결과 지금 전통이 된 네 가지의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제도들은 마치 박물관의 화석과 같이 전시되어 있을 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감사드리는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삼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 바로 교회 역사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 초심을 정체성의 이름으로 다시 정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지침으로 삼는 일,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음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알기 위해서, 앞으로 설문조사의 심층 분석을 계속 보도하려 합니다.

함글함글

창립 30주년 기념 | 2018 가을운동회 보고서

# 잠실벌에 펼쳐진 주님의교회의 “소확행”!

이번 가을운동회는 전교인 체육대회로는 아마도 초유의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초 기획된 이 운동회는 200명에 가까운 준비 위원과 스태프가 헌신한 가운데 예상을 웃도는 인원이 참여하여 뜻깊은 행사로 기록되었다.

**기획과 준비**  
8월 초에 발의된 이 운동회를 위해 8월 5일 ‘전교인 체육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성구 서기장으로 및 교구대표 장로 참석)이 개최되었고, 기획팀장으로 정원영 안수집사가 선임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취지와 목적이 정리되었는데, ①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주님의교회 전 교인 어울림 한마당, ②어린이에서부터 장년부가 함께 뛰며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실천, ③교구 별, 겨자씨 별 폭 넓은 교제와 단합을 도모, ④건

강한 몸과 정신, 생동감 넘치는 교회 분위기 조성이었다. 이날 행사명을 ‘전교인 운동회’로 변경하고 예상 인원을 1,000명으로 추정했다. 이후 9월 30일까지 9차에 걸친 준비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명칭이 ‘가을 운동회’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채로운 기획들**  
9월 20일 회의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상품의 내용이 결정되었다. 시상품을 ‘쌀’로 결정하고, 이는 시상 후에 (사)섬김과나눔에 후원

하기로 결정했다. 최선을 다해 우승한 팀이 받은 상품을 불우이웃에게 후원하는 ‘나눔의 운동회’로 마감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운동회’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9월 13일부터는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고, 16일 회의에서는 교회에서 후원해 온 ‘치어리더 팀’(블랙이글스)의 특별출연이 결정되었다. 이 팀은 몇년 전부터 주님의교회 청소년분과위 꿈나무부에서 후원하는 단체로, 여러 대회에서 금상 및 우수상 수상을 받은 재능있는 팀이며, 감사의 뜻에서 출연을 자원했다. 다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맨바닥의 공연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행사의 진행**  
10월 3일 행사는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총 참여 인원은 1,130명으로, 예정했던 1,000명을 13% 초과하는 인원이 참석하는 호황을 이루었다. 교구 참석자 960명 외

에도 장애우 41명, 치어리더팀 27명, 교구 외의 어린이 70명이 참석했다. 열띤 경기 결과 우승팀은 4교구로 결정되었다. 우승팀에게는 ‘쌀 10kg 70포’가 시상되었는데, 이 시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바로 우승팀 대표에 의해 (사)섬김과나눔에 기증되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와 준비팀, 행사요원, 경기진행, 주차, 사진, 시설물 설치 등에 146명, 교구 책임자와 운영요원으로 50명 등 196명이 헌신했다. 이날의 행사를 통해 교구 식구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친교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거의 전 교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은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돋보이게 했다. 더불어 예산도 절감하여 총액의 약 5%를 남겨, 알뜰한 운동회로 기록되었다.

함글함글

\* 소확행 :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 운동회 1부 (오전 경기) |             |             |
|----------------|-------------|-------------|
|                | 시간          | 경기 종목       |
| 1              | 10:00~10:20 | 투호 / 고리 던지기 |
| 2              | 10:20~10:50 | 풍선기둥 높이세우기  |
| 3              | 10:50~11:20 | 단체 줄넘기      |
| 4              | 11:20~12:00 | 축구 페널티킥     |
| 5              | 12:00~12:20 | 고무신 멀리던지기   |
| 6              | 10:00~11:00 | 족구 경기       |

| 운동회 2부 (오후 경기) |             |            |
|----------------|-------------|------------|
|                | 시간          | 경기 종목      |
| 1              | 13:30~13:50 | 큰 공 굴리기    |
| 2              | 13:50~14:10 | 6인 기차 릴레이  |
| 3              | 14:10~14:25 | 오자미 바구니 넣기 |
| 4              | 14:25~15:00 | 보디가드 피구    |
| 5              | 15:00~15:15 | 단체 줄 다리기   |

번식교회 소식 | 광야의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 설교

## 작은 교회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된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더욱 가까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본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복음과 교회의 이 같은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교회 모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회 모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지역 교회로서 지역 사회의 일원입니다. 지역 교회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웃교회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사업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복지단체, 친목단체 등 많은 다양한 주제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사회가 지역 교회의 존재 근거입니다. 교회는 배타적 구원의 방주(방주교회론)가 아니라,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공동체(등대교회론)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교회 모델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오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장으로 마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연로한 주민들은 교회를 통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창립 7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준비하는 광야의 교회는 교회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역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매우 자랑스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평일에 수시로 낮아진 교회 문턱을 넘나들면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칩니다. 또한 교회 공간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분주하면서도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뜻 깊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교회 모델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개교회주의, 곧 내가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가 전부라는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의 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곧 모든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기뻐하는 이웃 교회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이웃 교회와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교회

### 파송안내 및 준비모임

- 11/3(토) 한윤호 목사  
오전 10:30~12시 / 3층 성경교실 “섬김과 봉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 11/10(토) 한윤호 목사  
오전 10:30~12시 / 3층 성경교실 “제자와 선교: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길”
- 11/17(토) 김정형 목사  
오전 10:30~12시 / 3층 성경교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마을, 행복한 아이들”
- 11/25(주일) 임창진 목사  
오후 2시~3:30 / 광야의교회 “광야의교회 비전 및 목회철학”

\* 강사 : 한윤호 목사(前선한목자교회 분림개척 디렉터), 김정형 목사(장신대 교수)

\* 강의는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교회 모델은(교단을 초월하여) 이웃 교회와 함께 협력하며 마을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을에는 교회가 칭찬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을에 속한 여러 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면, 각 교회가 능력껏 마을 일을 나누어 맡아 감당한다면, 세상의 빛으로서 빛나는 교회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작은 교회들 간, 작은 교회와 큰 교회 간 네트워크를 새롭게 형성하고, 개교회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교회 생태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 속에서 구체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이러한 작은 지역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저는, 광야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연대, 그리고 거여동 일대 교회들의 연합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지역 교회들에 주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작은 지역 교회들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 그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작은 교회는 광야의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겨자씨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한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일에 동참한 이들과 연대해 주십시오.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진정하신 주인 되시는 작은 교회의 일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김정형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2018 가을운동회 화보

# 높푸른 가을 하늘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2018년 10월 3일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열린 가을운동회에 1,130명의 교인이 모여 총 11개 종목을 함께 즐겼다.  
함께 뛰고, 함께 행복했던 현장을 화보로 꾸몄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②

# 소통, 교회의 언어는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개신교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 자신의 눈과 언어로 하나님을 생각하자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그 두 번째 글은 복음주의 운동가인 양희송 청어람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번 인터뷰나 발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다음 호에 수록하여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기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발제 순서

### 1. 한국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교회가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창립 후 30년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 2. 소통\_교회의 언어는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용어와 일상어와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사회와 소통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 3. 정치\_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동행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봅니다.

### 4. 경제\_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경제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 5. 교육\_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급변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6. 가치\_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출몰하고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다양한 가치들을 바라보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 7. 환경\_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자연 보호와 개발의 문제, 원전과 에너지 문제, 생명권과 동물권 등,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자연에 대해 성찰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양희송 대표는 복음주의 운동가이며 청어람아카데미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도를 졸업하고, 영국 브리스톨의 트리니티 칼리지(BA)와 런던 신학교(MA)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월간 <복음과 상황> 편집장 및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한동대학교에서 7년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다. 랍 벨(Rob Bell)에서 존 스토틀(John Stott)까지, 톰 라이트(Tom Wright)에서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까지 ‘복음주의 운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개해 왔다. 2005년부터 한국 교회와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청어람아카데미’에서 신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에서 대중강좌를 기획, 운영해 오고 있다. 2011년에는 CBS TV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다시 프로테스탄트>(2012),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2014), <세속성자>(2018) 등의 책을 썼다. 이 인터뷰는 지난 9월 28일 신촌에 있는 청어람아카데미에서 함글함글 팀 몇분과 함께 이루어졌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을 청탁해 주셨는데, 글보다는 인터뷰가 좋을 것 같아 뵙자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강연과 저서를 통해 한국 교회의 여러 측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제도권 교회와 ‘성’과 ‘속’의 경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신선하고 통찰적인 말씀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스러운 미래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과 ‘속’을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속’에서 ‘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생각이 없는 단순노동은 노예의 노동이지만, ‘노동의 영성’은 구조나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유하는 노동을 말한다는 지적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떠올랐습니다. 본질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상은 자칫하면 악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으

로 사는 것에 대한 결단이 예배이며, 일상 속에서 영적인 순례자와 세상의 거류민 사이에서의 창조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노동의 영성을 가진 삶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근대적 개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몸에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할 경우, 종전의 유교적, 수직적 집단의 질서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셨네요. (웃음) 긴장해야겠습니다.

오늘 특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사회 사이의 소통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일종의 벽이 있어, 교회의 언어는 사회에서 볼 때 상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회는 또한 사회의 흐름에 큰 관심이 없는 데에서 교회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델 차원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수신자를 고려하지 않고 주로 발신자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 안에 내재된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대개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들과의 타협이나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설교자들은 수신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신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수신자의 상황에 관심이 없거나, 수신자의 정서와 상황을 살피는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공감하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2년 펴낸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에서 볼 때 우리에게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보통 로고스는 진리, 혹은 합리성,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로고스에 대한 헌신

이 많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스스로 로고스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권위를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개신교인들이 말이 많거나, 자기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이 바로 로고스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로고스만 갖고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파토스와 에토스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한국 교회에는 오히려 파토스가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고스를 통해 잘 설득한다기 보다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정서적, 감성적으로 신앙을 소구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통성기도, 철야기도, 금식 등 강렬한 신앙 체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로고스가 결여되어 있고 파토스가 독주하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파토스가 충족되면 다른 것은 별로 묻지 않는 상황이지요. 좋은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에토스가 필요합니다. 에토스는 윤리와 태도를 말합니다. 로고스와 파토스가 있는데 에토스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기꾼입니다. 논리가 정연하고 말도 잘하는 데다가 열정적인데 다만 죄의식이 없는 것이지요. 논리적이고 정서적이라도 윤리성이 따르지 못하면 소통은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뼈아프게 지적받는 부분이 윤리문제입니다. 사회에서 교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불신을 받고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윤리와 신뢰는 쉽게 쌓이지 않지만, 붕괴는 순식간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윤리적인 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성추문과 교회 세습 등의 추문이 나오면서 그 근본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즉, 지금은 메시지가 아니라 윤리의

지금은 메시지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말이 많을수록  
소통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토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말이 많을수록 소통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토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설교를 잘한다거나 신앙 경험을 강조하는 쪽에 치우쳐 왔고, 필연적으로 에토스의 붕괴를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한 의논을 찾기 어렵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볼 때 이 세 가지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특히 에토스의 결여가 한국 교회의 두드러진 양상입니다. 이것의 회복을 위한 교회와 성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에토스에 있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사회를 위해 여러 바람직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교회 세습 등으로 그 모든 공과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사라지고 총체적으로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 목회자뿐 아니라 은밀하게 성도들의 공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곧 교회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직주의 뿐 아니라 성장주의도 교회의 성장을 대명제로 할 경우 교회론의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교회론이 없습니다. 성장주의 교회론뿐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해도 성장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소신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메카니즘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론의 갱신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란 무엇이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인데, 이들의 등장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깨우쳐 줍니다. 교회 입장에서 가나안

성도들의 질문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질문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결여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려고 하긴 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 명동성당이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데 앞장선 시위학생들에게 피신처를 내어주었을 때 거의 모든 개신교회들은 문을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경험치가 어디냐에 따라 평가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평균보다 사회 여러 문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구심점이 없다 보니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존재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사회 그늘에서 헌신하는 개신교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스스로 소통을 거부하려는 암묵적인 태도도 있지 않은가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라틴어 미사를 폐지하고 각국의 현대어 미사로 바꾸고 성경도 현대어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정전으로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도 옛 말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소통을 거부하는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은유를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에서 영적 긴장이 갱신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성경 언어의 역할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아마도 관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개역개정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현대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새로운 성경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인데 성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서 성서학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실 성경의 언어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신학에서 해야 하는데, 교단 신학은 신학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보니, 성도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신학자들이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야 신학자들이 십여 년 전부터 생기는 까닭이 그런 신자들의 질문에 답하려는 것입니다. 몇몇 아카데미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차원에서 새로 신앙고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도 있고, 고대의 신앙고백을 현대에 재해석해서 가져올 수 없을 까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강대 철학과 강영안 교수님의 ‘사도신경 첫 줄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열두 줄입니다. 열두 사도에게 한 줄씩 배당된 것이지요. 처음엔 12주면 강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가 첫 줄만 갖고 떠오르는 많은 주제들을 탐색하다 보니 15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후 강영안 교수님의 ‘사도신경 첫 줄 강해’를 5주에 걸쳐서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첫 줄에서 ‘전능’은 무엇인가, ‘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아버지인가, 이렇게 강해하다 보니 5주가 되었습니다. 온갖 강영안 교수님이 원전 자료를 인용하면서 강해했는데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칸트는 뭐라고 말했고 하이데거는 뭐라고 말했고, 신학뿐 아니라 철학과 심리학과 문학 장르를 구별할 수 없었던 인문학적 강의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청어람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오는 분들도 대학교수, 대학원생, 일반인 등 다양했습니다.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크다, 잘 끌어내면 더 고급스럽고 진지하며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2010년대 초반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이 한국 교회 안에서 지적 필요성이 요청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언어를 고수하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교회 바깥의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만들기는 어려우나, 외부에서 발전시켜 놓은 것을 교회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안목과 상상력이 높아지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변화가 가능해지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비제도권, 즉 재야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도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성도가 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교회 내부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재야 신학자들이 성도들의 모임, 목회자 모임에도 자주 초청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사회와의 소통에 관심이 깊고, 또 이해가 높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제도 교회 안에서 개개의 목회자들이 그런 변화를 쉽게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메가처치의 목회 스타일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메가처치에서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예배 드라마도 하고 스펙타클한 장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라는 스테이지 위에서 퍼포먼스 중심의 예배 경험을 얼마나 잘 제공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대별로 예배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가 보니, 주일에 강좌를 많이 합니다. 예배 설교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강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리, 실천, 가정생활, 봉사 등에 대한 다양한 강좌 라이브러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신학교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노예 시대의 어떤 노예의 기록에 의하면,  
농장 주인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저’ 때렸는데,  
교회에 다닌 후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때리더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예배 경험 하나를 중심으로 했으나, 이제는 성도들의 더 다양하고 깊은 관심사와 신학적 욕구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 외에도 다양한 강좌가 펼쳐집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강좌도 듣고, 봉사도 하면서, 신앙적, 지적, 인문학적 훈련을 받고있었습니다. 예배만 갖고는 해소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모델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교회 안에서 접목을 한다면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대별 신앙 교육, 예컨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연령대 성도들에 대한 성경 재교육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제자훈련이 여러 대형 교회의 주된 양육 과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등에서 큰 흐름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훈련 과정이 대부분 같은 과정을 세대별로나 단계별로 반복하다 보니 결국 과정을 마치는 사람은 체제 순응적인 사람만이 나오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으로는 상상력을 갖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자치적인 성도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양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훈련하는 방법에 따라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세속성자>에서는 ‘성’과 ‘속’의 모순형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일상, 바로 여기가 ‘성’을 실천하는 자리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안은 거룩하고 밝은 속되다는 공간적 이분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속을 신앙의 터전으로 삼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성이 강조됩니다. 영성은 교회 공간뿐 아니라, 세속이라는 장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장면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가를 즐기는 모든 장면에서 영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교회 안의 이벤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속에서 사는 모든 삶에서 영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에서 비로소 교회와 사회의 경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영성을 강조하긴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통, 가나안 성도들과의 소통, 확장해서 교회 밖인 사회와의 소통에서 근본적인 매개는 언어입니다. 교회 용어의 상투화도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가 폐쇄 사회 안에서 순환되며 사회와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상투적인 상징체계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고유의 언어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확장성 없이 소통의 전달력을 잃어버렸다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기독교 고유 언어의 확장성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컨텍스트에서 의미있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독교가 의미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세상을 바꾸는 15분>을 기독교 방송과 함께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언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기획이었는데, 그 때 절감한 것 하나는 목회자들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인 언어로 소통 가능한 분들이 드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김동

호 목사님이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자활 사역에 대한 강좌를 했는데, 끝난 후 청중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말이 일반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드문 사례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이슈를 교회 안으로 빨아들이다 보니 메시지가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 기독교의 송고함을 어떻게 보편적인 언어로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에 있어 맥락, 배경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사회에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에 대한 관심, 국제 정세의 다양한 변화, 생태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진행되는 추세인데, 이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장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교회 슬로건도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인데, 정작 세상 이 무엇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구체적인 장치도 없습니다. 사회와의 소통을 막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조직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보수화가 됩니다. 교회는 주변 세계에 대한 의식이나 성찰을 놓치면 탈역사적인 집단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를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노예의 기록에 의하면, 주인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저’ 때렸는데, 교회에 다닌 후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때리더랍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노예 해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노예 농장주가 되고있는 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에서 배척하던 병자, 매춘

부, 세리, 사마리아 여인과 가까이 지낸 이유를 알아야 하지요. 노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게으르다느니 병적이라느니 식으로 옳다그르다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밥부터 주자, 즉 인간으로 대우하자 라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신과 다른 부류를 정죄하고 이단시하며 경계를 짓는 현재 한국 교회는 사실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위선적이라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조적, 제도적으로 소통의 통로가 막혀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회와 소통하면서 본질적인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균일한 단일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는 모체가 되는 한국 사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요. 달리 말하면, 교회를 변화시키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교 개혁은 서구 사회가 근대로 넘어가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구의 근대를 이끌어냈던 개혁의 동력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집단의 일원으로 신앙을 가졌던 중세 가톨릭과 다른 특징은 특히 신앙의 개인성,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신을 만나는 루터의 정신에서 출발해야지요. 개신교 탄생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인에서 발원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대체로 봉건적 집단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신교 성도들은 개인의 탄생, 개신교인으로서의 자신의 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개인성에 기반을 두고, 만인사제, 직업의 영성을 생각해야하는 것이지요. 개신교적 자각, 즉, 개신교 원래의 원칙을 살

> 9면으로

목회 칼럼

#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과 공존하기

가을이 깊어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떠나는지, 주말이면 교회 앞 정류장에는 수 많은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교회 각 기관들도 밖으로 나가 야외예배를 드리곤 하지요. 안타깝게 모두들 자연을 찾지만, 자연은 우리들 때문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이 창조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 나가야겠지요. 이것을 창1:28절의 문화명령이라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모습을 유지하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돌보고 섬겨야 할 책무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말씀을 왜곡하여 오히려 착취하고 파괴하며 정복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철저히 관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하며, 이것은 다시 인간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의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지요. 회복의 길은 인간만 잘 살려는 욕심을 회개하고, 공존의 삶을 추구하지

않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감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들과 광야를 거닐며, 하늘, 땅, 풀, 새, 꽃, 곡식을 보면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세계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

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느깁니다.

나를 스쳐가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쳐가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시작되고, 모든 생명들이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섬길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것이지요.

펠 바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합니다. 나는 땅 위

만물이 아름답게 단풍 들어가는 이때,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 속으로 달려가보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시인처럼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스쳐가는 바람과 따뜻한 햇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세계를 보면서 감탄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잊어버린 우리의 문화명령(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섬기고 도우라는)도 회복하면 어떨까요?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을 꿈꾸며...

장수현 목사

> 8면에서 이어짐

리고 충실하다면, 즉, 개신교인 자신들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라본다면 교단과 성직자의 메시지에만 의존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성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앙의 개인성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성도는 사제와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지요. 이 모

두를 다 걷어내고도 나는 신자인가를 확인하는 일부러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다리로 서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개신교 신앙에는 내적인 불안정이 있습니다. 늘 균형을 찾아 이동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중세 가톨릭이 주어진 시스템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개신교는 늘 양심과 소신에 따라야 한다는 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사실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정을 이겨내고 성도 개개인이 개신교의 시작이 무엇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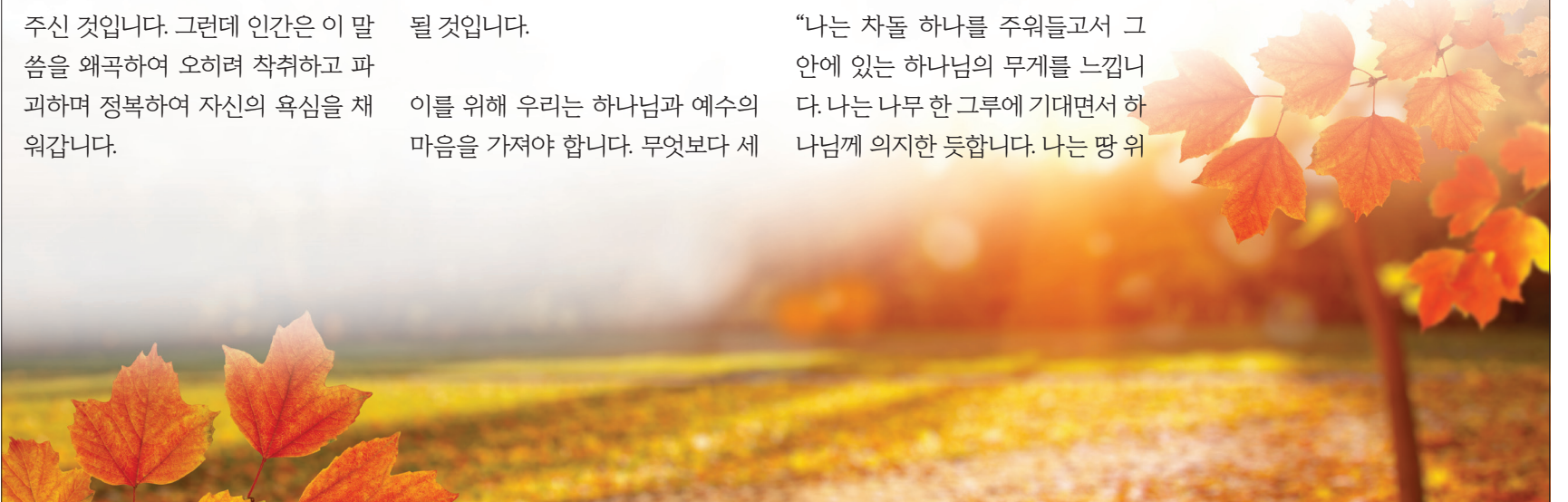
있었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현재 중세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한국 사회의 일부이므로, 소통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동시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 중3때 회심을 하셨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회심의 경험이었는지요?

중2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3 여름방학 수련회 때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에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신앙적 경험을 하

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가, 라는 질문이 왜 주님이 아닐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기도했던 시절입니다.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결국 이렇게 재야 신학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신임 교역자 인사

## 선행을 옷 입듯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기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하여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목사 / 2교구, 봉사분과, 국내선교 담당



## 사역 소식

## 9월 새가족 환영회

9월 30일 새가족실에서는 양육과정을 마치고 새로 주님의교회 가족이 된 새가족 환영회가 열렸다. 만물이 결실하는 풍성한 가을, 넓은 새가족실이 비좁아 보일 정도로 많은 새가족이 교육을 수료했다. 새가족과 더불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소망한다.



함줄함울

## 신앙 간증

## 기도하는 손의 두 얼굴

먼 옛날, 독일의 어느 시골에 화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둘 다 너무 가난했기에 그림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 중 하나가 “네가 먼저 공부를 하면 내가 일을 해서 네 학비를 달게. 그리고 네가 화가로 성공하면 나에게 학비를 대 줘”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도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시작한 그림공부를 마친 젊은이가 졸업장을 손에 쥐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달려갔다. 식당의 영업시간이 끝나서인지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 구석에서 기도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님, 저의 친구가 그림공부를 마치고 이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친구가 화가가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친구가 제 뒤통까지 그려서 훌륭한 화가가 되기까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청년은 자신을 희생해서 친구를 위하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그 친구의 기도하는 울통불통한 손을 화폭에 담았다. 그 그림이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친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 비록 자신은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친구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는 마

음이다.

나에게 형님이 한 분 계셨다. 그런데 형님은 다른 친구들의 형님들과는 사뭇 달랐다. 친구의 형님들은 대개 어린 동생들에게 딱지, 팽이, 연, 썰매, 자치기와 동글레 놀이기구 등 어린이들의 놀이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주거나 사 주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챙겨 주었지만, 나의 형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았다. 심지어는 내가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도 중학교 진학을 결사 반대하셨다. 나는 광복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워낙 나이 차이가 심해서인지 1학년 때에는 반장을 못했고 2학년 때부터는 계속 반장을 했다. 지금은 학교마다 반장의 선출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때는 시험성적이 1등이라야 반장이 되었다.

그런데도 형님은 나의 중학교 진학을 반대하니까 2년 가까이 나의 불쌍한 모습을 지켜보시던 큰 삼촌이 폐교 직전의 고등공민학교에 쌀 서 말로 입학할 시켜 나의 학교생활은 계속되었다. 나는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고등공민학교의 폐교로 인근 중학교의 3학년생으로 편입되었고, 공납금은 모두 담임선생님께서 대납해 주셨어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형님은 나의 고등학교 진학도 반대하셨다. 그렇지만 형님이 반대하신다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할 내가 아니었다. 나는 가족들 몰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나무장사로 공납금과 학용품값 전액을 혼자

서 부담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서울로 가출을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걸인이 되고 말았다. 한강 백사장에서 자갈도 캐 보았고, 짐차에 모래도 실어 보았으며, 손수레에 철물을 싣고 세종로 네거리를 달려도 보았고, 수십 척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우물도 파 보았으며, 수도여자고등학교의 강당 신축 공사장에서는 등짐으로 바윗돌을 나르다가 결국은 졸도하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도 보았다.

견디다 못해 공군에 입대했는데 병영은 의식주 모두가 충만한 아름다운 천국 같았고, 공군항공병학교와 공군기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나는 공군기술학교 항공기 엔진정비 교육대에서 3년간의 군복무기간을 즐겁게 장식했다.

전역과 동시에 귀향한 나는 마을 이장님 댁의 사랑방에서 서울신문을 뒤적이다가 내각사무처에서 2주 후에 실시한다는 국가 9급 공무원 임용고시 광고문을 발견하고는 시험공부를 시작했지만 형님은 시험공부를 못하게 하셨다.

할 수 없이 지금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시집간 누님 댁엘 찾아가 창고 같은 결방에서 13일 동안을 엮혀 지내면서 시험공부를 했다.

그랬어도 내가 알고 있던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그랬겠지만 충남 지방에서는 수석으로 합격했다. 국가공무원 임용고시에 수석합격을 해서인지 여러 부서에서 오라고 했으나 당초부터 나는 행정기관에 근무를 마

음먹었기에 면사무소 근무를 희망하여 지방행정서기보로 초임발령을 받았다. 면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도 사업소, 군청, 도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교육청, 도교육청, 교육부 등을 들락날락하면서 이사관까지 승진을 계속해 보았고 충남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강원관광대학의 총장도 역임해 보았다.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2년이 지난 뒤에 대학교와 대학원도 졸업했고, 11권의 책지도 발간해 보았으며 지금도 한국문인협회와 한국공무원문학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렸을 때에는 나에게 대한 형님의 끊임없는 저주가 한 없이 원망스러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곰곰 묵상해보면 이 모두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되어 진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나의 형님도 다른 형님들처럼 나를 보살펴 주셨으면 분명 나도 보통 친구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형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형님의 저주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실감하고 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형님의 묘소에 따뜻한 사랑을 듬뿍 묻어 드렸다.

역시 기도하는 손이나 저주하는 손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것 같아 삼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장관주 집사

## 2018년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2018년 10월 7일의 1차 선거와 14일의 2차 선거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2018년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장로 3명, 안수집사 17명, 권사 16명이 피택되었습니다. 피택자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후 내년도 창립기념 주일에 임직되어 여러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격변기를 맞은 주님의교회 10년을 앞장서서 이끌고 묵묵히 낮은 곳에서 헌신할 피택자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가나다 순)

### ■ 장로



김낙균



김은성



이현식

### ■ 안수집사



김길동



김성철



박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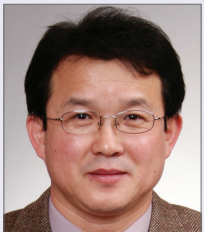
박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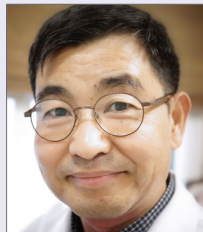
박진현



배홍모



신호철



엄인호



오재경



오치민



유재건



이승균



이승훈



이창수



정만희



정 호



홍기호

### ■ 권사



김광희



김덕임



김유경



박선주



배애리



송성열



신기숙



유정아



유현자



이경란



이미화



이영수



이춘실



정재영



정태란



함혜련

## 아기나들이



## 정예은 아기

2018년 6월 3일생

1.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삼고 주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도록
2. 영, 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3. 나라에 보탬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되도록

아빠 정승현 / 엄마 방윤주, 2018년 10월 7일 3부 예배

## 함즐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즐함울

## '배달의 함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님의교회의 참 '좋은 선교지', <함즐함울>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교회 밖 어떤 분이시든, 주소와 보내드릴 부수를 hamletter@daum.net으로 알려주시면, 나올 때마다 저희 함즐함울팀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곧 신청하세요!

함즐함울

## 알립니다

2019년 <함즐함울>을 새롭게 빛낼  
역량 있고 젊은 편집장과 기자를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즐함울>의 편집장과 기자를 모집합니다.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 성도간의 소통을 위한 지면으로 구성됩니다.

- 세례자이며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는 분.
- 신문사, 잡지사, 학보사, 출판사에서 취재, 편집 경험이 있거나, 없지만 배우고 싶은 분.
- 교회 내 여러 사역 활동을 두루 알고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
-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함즐함울> 기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
- 토요일 아침 8시에 있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 만 50세 미만이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

2019년을 앞두고, 새로운 감각과 관점으로 <함즐함울>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교우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위에 적힌 여러 조건에 맞아 사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즐함울

## 사역 소식

## 중보기도부 가을 수련회



10월 4일(목)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중보기도 사역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수련회를 가졌다.

온전한 단풍은 아니었지만 초록과 연한 빨강이 어우러진 수련원 앞뜰에 양떼구름 물려가는 하늘빛 아래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가짐에 더 소중하고 은혜로운 2018년 중보기도부 수련회였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연으로 어떤 믿음으로 시작하였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고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그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모두의 가슴속 품은 기도 제목들이야 각각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통성으로 기도를 하였다.

오후에 이어진 정창화 목사 특강 시간에는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오른손을 들고 중보기도 서약식을 진행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첫째, 중보기도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 둘째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기도 헌신 시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지키고, 최선을 다해 중보기도 사역에 임할 것, 셋째 중보기도실에서 드러지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아뢰고 모든 기도 내용은 비밀로 철저히 지키는 것, 넷째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그 날까지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할 것을 서약했다.

함즐함울

## 알립니다

## 1. 교구 연합 금요기도회 (주관:4교구)

일시 : 11/2(금) 오후 8:00~9:30 대예배실

▶ 모든 교구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2. 11.12월호 큐티책(큐티인) 판매

일시 : 10/21,28(2주간) 오전 8:30~오후 2:00 로비(1층)

가격 : 5,000원(권당 할인금액 500원은 교육목회원 큐티책 지원에 사용됩니다)

## 3. (사)섬김과 나눔 회계(여) 사역자 모집

사역 : 주 4~5일, 일 3~4시간

자격 : 회계업무 경험자, 컴퓨터 엑셀 기능자

대우 : 소정의 사례비(교통비, 식대) 지급

문의 : 안성봉 안수집사(010.5383.4030)

## 4. 광야의교회 파송신청 및 준비모임

파송신청 : 10/31까지, 1층 사무실

준비모임 : 11/3,10,17(토) 10:30~12:00, 3층 성경교실.

11/25(주일) 14:00~15:30, 광야의교회

(준비모임이 세미나를 겸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5. 어린이교육목회원 부모 교사 교육

일시 및 장소 : 10/21,28 (주일), 1:30~3:30 / 초등부실

주제 : 참된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부모 그리고 교사

강사 : 이규민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 6. 상담특강:공포증의 원인과 치료

강사 : 김충렬 박사(전 한일장신대 심리상담학부 교수)

일정 : 10/21, 28(주일) 오후 1:00~2:30 제1집회실(5층)

문의 : 이병직 안수집사(010.5285.7060)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